

‘리박스쿨’ 댓글조작 의혹… 지역 학부모 우려 확산

극우 성향 교육단체

늘봄학교 자격증 미끼로 댓글 논란
리박스쿨 강사, 서울 10곳서 활동
‘광주·전남 학교 관찰나’ 우려 확산
“개별 강사 이력 검증 등 기준 마련”

윤석열 정부의 초등 돌봄통합 정책인 ‘늘봄학교’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정치적 개입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에서 자격증을 미끼로 온라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광주·전남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이승만과 박정희를 추앙하는 역사를 가르치는 곳)은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조작팀 ‘자순군(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의 일부 인사가 서울 지역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리박스쿨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에 이 단체 소속 강사들이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언급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의 연계 여부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프로그램 운영 중단과 업무협약 해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증이 있다. 해당 자격증은 리박스쿨이 협업 중인 기관이 자체 발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강사는 자격증 소지만으로 채용되지 않으며, 각 학교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적절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교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극우 성향 단체가 교육 현장에 침투한 사

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늘봄학교 정책은 위탁기관의 전문성 부족과 민간위탁 구조로 인한 강사 검증 부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책 자체를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도 “우리 지역 늘봄학교는 안전한가”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광주지역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초

등 고학년은 논술 수업을 듣게 됐고, 그에 따라 역사 수업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친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5)씨 역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일선 학교의 책임이 클 것”이라며 “늘봄학교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하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절차 위반… 5·18 부상자회장 당선 무효”

학력 허위 기재·의결수 불충족 인정

법원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의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부상자회 회원 2명이 회장 조규연 씨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난해 6월 회장으로 결정한 당선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정관에 명시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경선 과정이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력서에 기재한 학

교는 실제 졸업한 학교와 개교 연도 등이 달라 별개의 학교로 봐야 하고, 이는 유권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이사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당시 찬성 이사는 2명 중 1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고, 이는 단체 정관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조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한 차례 더 설명할 기회를 얻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회장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와 정반대여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전남 당분간 큰 일교차… 비바람 동반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예보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큰 일교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광주·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최저기온은 15~18도, 최고기온은 18~21도로 평년보다 2~6도가량 낮은 날씨를 보ی겠다. 또한 서해남부남쪽바깥면바다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9~15m로 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 파고는 1.5~3.5m로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화요일인 3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지만,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으며 최저기온은 15~17도, 최고기온은 22~26도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날까지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 지역에는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4일인 수요일 또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최저기온은 13~16도, 최고기온은 23~27도가 예보됐으며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광주지방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재난대비 전략 논의

안전표지·슬로건 부착 등 실천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

광주광역시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총무 시설에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재난과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기구다. 위원회에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025 안심도시 광주’ 실현 전략, 여름철 폭염·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배복환 광주시 시민안전실장, 김대식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본부장, 유병용한국도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장, 김진강 광주시관광공사 사장,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대표 등 23개 지

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들은 일상 속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등 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1부서 1표지판·슬로건’, ‘1기관 1수칙’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1부서 1표지판·슬로건’은 ‘안전은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라는 내용으로 기관별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1기관 1수칙’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와 같은 생활안전 캠페인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발굴해 홍보하는 캠페인이다.

광주 지역 교육 시민단체도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우 세력이 유튜브와 집회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학교 현장까지 침투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또 “늘봄학교가 도입 초기 단계이다 보니 강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강사 파견 업체 등을 통해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인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개별 강사에 대한 이력 검증과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광주의 일부 학교 축제에서도 왜곡된 역사관이 반영된 영상이 상영된 사례가 있었다”며 “청소년들이 이러한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순간, 그 확산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차원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높은 수요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제석산 구름다리 잇단 추락사고에 와이어 방지망 추가 설치

1억3000만원 예산 투입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인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잇따라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전남일보 4월 22일자 6면> 남구가 추락방지 시설 추가 설치에 나선다.

광주 남구는 1일 제석산 구름다리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름다리 주변에 안전시설을 추가

로 설치하면서 추락사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름다리와 도로 사이 상단 1322㎡, 하단 548㎡ 규모의 와이어 추락 방지망이 설치된다. 해당 와이어 망은 골프장 등에서 활용되는 구조물로, 100kg의 충격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남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난 1999년 도로

개설로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된 보행 전용 교량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사고로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남구는 2020년 난간 높이를 기존 1.2m에서 2m로 높이고 회전식 원통형 난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완에 나섰지만 사고가 잇따르자 이번 와이어망 설치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정준 기자